

하나님이 주실 상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창립 26주년 에브리데이교회
임직 감사 예배

창립 26주년을 맞은 노스리지에 있는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가 4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피택 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을 임직했다.

이날 브리지 위십의 찬양으로 시작된 임직예배에서 존 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김예림 자매의 특송에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하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 총무)가 축사를 전했다.

손창민 목사의 집례 하에 임직 서약 및 안수, 임직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임직자 대표로 인사를 전한 성제환 장로는, “장로로 피택된다는 점에 대해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시간이었다. 처음 에브리데이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내에게 이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내 자신의 믿음에



노스리지에 위치한 에브리데이 교회(손창민 목사)는 4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창립 26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드리고 피택 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을 임직했다. ©기독일보

대해서는 자신도 없었다. 장로라는 직분도 멀게만 느껴졌다. 장로로 피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찾아왔다. 그래도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직식에 앞서 주일예배에

서 히브리서 11장 24절~26절을 본문으로 “버림과 포기의 믿음”(믿음이란 무엇인가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세상에서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 명예든 뭐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얻기 위

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애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

서워한다.”

그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제자들의 버림과 천국의 상급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 채 예수를 따르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부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봐야 한다.”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섬김이 진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생 모집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에서 미주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금액은 인당 \$4,000이며, 미주 내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인 풀타임 신학생은 지원할 수 있다.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교회에서 마련한 5박 6일간의 HESED TRIP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장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한 미주 교회들과 주요 랜드마크를 탐방하게 되며, 비행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일정 경비는 교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김민선 기자 →3면에서 계속

기독교 단체,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2만 명 송환 촉구

4개월에서 17세까지 아이들
정치적 재교육, 강제 동화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신앙단체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납치한 약 2만 명의 어린이를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군이 2022년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약 2만 명의 어린이를 납치했

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또 “4개월에서 17세까지의 아이들이 정치적 재교육, 군사훈련을 받고 러시아 사회에 강제 동화됐다. 또 많은 아이가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거나 출생증명서 변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말소당했다”며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적절한 음식과 보살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의 핵심 안건으로 (납치된)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자녀를 부모가 안고 있다. ©pbs.org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포함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평

화 협정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면에서 계속 신미셀 기자

당일송금
송금·환전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시그스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여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5 OC교계연합
부활절연합예배

일시 2025년 4월 20일(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민경엽목사 시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714) 909-0933
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다시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5장 5절

하늘바라기



구속의 삶
- 김은주

세상의 철장은
압함과 공포뿐이다

하나님의 결박은
자유와 평화 뿐이다

성령의 구속으로
더욱 견고하며 행복하다

주님께 쫓겨 뉘인 삶은
마냥 기쁘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 성료

가온 갤러리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선교사 자녀를 위한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지난 3월 25일 튀르키예, 마다가스카르, 태국, 베트남, 멕시코, 요르단, 미얀마, 일본, 파키스탄 등 35개국에서 선교사 자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재능을 선보였다. 제1회 (HOPE 미술 공모전)의 대상은 국하영(태국, 17세)의 ‘생명의 빛’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나하린(케냐, 20세)의 ‘미래를 향한 날갯짓’과 배하은(필리핀, 16세)의 ‘무덤가 아이’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1,000) 5명, 장려상(\$500) 5명, 소망상(\$300)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5,500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초 \$10,000의 상금이 계획되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

한 것에 주최측이 감동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가온갤러리 제니퍼 흥 디렉터는 “각 작품마다 신앙 고백과 꿈이 담겨 있었다. 신앙의 1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4월 12일(토) 오후 4시 가온갤러리에서 개최되며,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는 영상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시상식 일정

일시: 4월 12일(토) 오후 4시

장소: 가온 갤러리(6188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문의: GBC 714-484-1190, 가온갤러리gaonartgallery@gmail.com

H.O.P.E 미술공모전

가온갤러리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지난 3월 25일, 35개국에서 참여한 80여명의 선교사 자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세계 35개국 80명 참여...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 23명 수상자로 빛나는 재능 선보여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빛나는 재능을 선보였다. 대상에는 ▲태국 국하영(17세) ‘생명의 빛’이 선정되었으며, 공동 최우수상에는 ▲케냐 나하린(20세) ‘미래를 향한 날갯짓’ ▲필리핀 배하은(16세) ‘무덤가 아이’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5명, 장려상 5명, 소망상 10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 태국 / 국하영(17세) ‘생명의 빛’

▲최우수상 : 케냐 / 나하린(20세) ‘미래를 향한 날갯짓’

▲최우수상 : 필리핀 / 배하은(16세) ‘무덤가 아이’

상금 \$15,500으로 확대 및 참가자 격려

수상자들에게는 총 \$15,500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초 \$10,000의 상금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한 것에 감동한 주최측이 상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선교사 자녀들의 꿈과 소망, ‘가온의 빛’ 공모전에서 예술로 표현

이번 공모전은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부모님을 대대 격기 위한 환관에서 자란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연고, 80여 명의 작품 속에는 아이들이 겪은 슬픔, 아픔과 신앙에 고백, 그리고 그들이 품은 비전이 담겨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손수한 고백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했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 미술 공모전이 35개국 선교사 자녀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GBC

2025 나눔On 지원금 전달식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LA산불 피해자,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난민 지원, 동행과 상생, 퍼스트펄컨 11단체, 발달장애 컨퍼런스 지원, 긴급 지원 예비금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3월 21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총 175,000달러 모금, 다양한 지원 진행 올해 총 175,000달러가 모금되었으며,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LA산불 피해 지원: \$50,000 ▶전쟁 난민 사역 지원(미얀마,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30,000 ▶퍼스트 펄컨(지역사회 그룹단체) 11곳 지원: 각 \$5,000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 \$20,000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지원: \$10,000 ▶긴급 지원 예비금: \$10,000

전달식은 ‘2025 나눔On 프로젝트’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대한 감사예배로 시작했다. 한기홍 목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의탁하신 것이다”고 전하며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전해지는 물질 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쟁 난민 사역 선교사들과 Pasadena Community Foundation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광섭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과 군인들, 버려진 고아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후원해주신 미주의 성도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복음이 실려서 잘 전달되도록 복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5 퍼스트 펄컨으로 처음 선정된 ‘러빙하트’의 그레이스 서 대표는 “그동안 선교단체로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외로울 때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게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감동이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곱의우물가선교회’ 조순미 대표는 “10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알면서도 바닷난 잔고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은데 매월 필요한 5천불이 이번 나눔On프로젝트를 통해 정확히 채워졌다”며 눈물을 쏟았다.

‘Altogether in Love’의 양한나 대표는 늘 눈물로 기도해왔는데 5월 행사를 앞두고 500명의 참석자를 위한 식사 비용이 마련되었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해왔다.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도 “팬데믹 이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후원이 많이 끊겨서 매월 예배처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와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마음 졸이며 지내왔는데, 이번 지원금 덕분에 당장은 쫓겨나지 않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의 나눔On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지역사회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다. 더 힘을 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사랑의빛선교, 라구나힐스 장학생 선발

사랑의빛선교교회 마감 5/4(주일)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장학생을 5월 4일(주일)까지 모집한다.

1) SEED장학금: 사랑의빛선교교회 등록 교인 및 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는 lolmc.SEED@gmail.com로 하면 된다.

2) 엘림장학금: 미주목회자자녀 및 선교사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 lolmc.ELIM@gmail.com로 하면 된다.

3) 장탄옥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2025년 신학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신학대학원생(M.Div Only)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 lolmc.JTO@gmail.com.

라구나힐스교회 마감 6/20

라구나힐스교회(담임목사 림학춘) 장학회(회장 박종수)에서 2025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후보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금년도에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다.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에 통과하면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한다.

장학 지원서는 라구나힐스교회 홈페이지(www.lagunachurch.com, 이메일 lagunakumc@gmail.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2면 기사〈기독교 단체, 러시아〉에 이어서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지정학적 협상의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안전, 존엄성, 가족과 재회할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 작성은 전미복음주의협회(NAE) 산하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릴리프(World Relief) 마이얼 그린(Myale Greene) 회장이 주도했으며, NAE 월터 김(Walter Kim) 회장,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RD) 마크 톨리(Mark Tooley) 회장, 수잔 제이콥스(Susan Jacobs) 전 대사, ‘데일리 브레드 미니스트리’ 샤론 윌리스(Sharon Willis), 가족연구위

원회(FRC) 트래비스 웨버(Travis Weber) 부회장,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랜드문화참여센터(Land Center for Cultural Engagement) 다니엘 달링(Daniel Darling) 소장, 그리스도연합교회(UCC) 로나 틴달(Rona Tyndall) 목사 등 다양한 신학적·정치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저항했고,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로부터 상당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받아 지금껏 항전해 오고 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2025년 부활절 새벽,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연합예배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이는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찬, 치유의 기도와 찬양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20일(일) 새벽 5:30
장소 : 서울 국제 공원 야외 무대 (올림픽과 아드모어 코너)

- 제 1부 예배 설교 Dr. John 미국인 목사님
- 제 2부 성찬식
- 제 3부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
- 제 4부 찬양 축제(헤세드 찬양 울동팀외 다수) 축도로 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주관: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Tel.(213) 505-1947

남가주교계 부활절 새벽 예배로 모인다

미주 한인교회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린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합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946년 창립된 조선기독교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신)와 주한 미군의 공동 주최로 1947년 4월 6일 새벽 서울 남산에서 15,000명이 모여 드린 이래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속되어 왔으며, 미주 한인교회도 이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아 부활절 새벽,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의 정신을 따라, 지역별 연합예배를 드린다.

LA, 평화교회

LA 한인 교회들은 4월 20일(주일) 새벽 6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드린다.

OC, 나침반교회

OC 교계는 20일(주일) 새벽 5시



지난해 충현선교교회에서 남가주교협 주관으로 열린 LA 교계 부활절 연합 예배. ©기독일보

30분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 Brea)에서 민경엽 목사의 설교로 드린다. 문의는 OC 교협 총무 조진웅 목사(바인교회, 714-909-0933)에게 하면 된다.

LA동부 지역, 아름다운교회

LA동부지역은 20일(주일) 오전 6시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박선호 목사(늘 푸른교회)의 설교로 드린다.

베이커스필드 지역, 지구촌교회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20일(주일) 오전 6시 지구촌교회(25 Garnesy Ave, Bakersfield)에서 베이커스필드 교역자 연합회 주최로 드린다. 설교는 고의용 목사(베이커스필드

사랑의교회 담임)가 맡았다.

라스베가스 지역: 중앙교회

라스베가스 지역은 20(주일) 오전 6시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임인철 목사, 7570 Peace way)에서 드린다. 설교는 조웅철 목사(갈보리 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한편, 고난주간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특별 집회를 여는 교회도 있다. 남가주동신교회는 4월 14일-18일(월-금) 저녁 7:30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연다. 김영길 목사, 송병주 목사, 백정우 목사, 남삼수 목사, 백정우 목사가 각 요일에 말씀을 전한다.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는 4월 14일-19일(월-토) 특별 새벽기도회를 연다. 주혁로 목사, 김경섭 목사(OC영락교회), 박일서 목사(가나안교회), 백남준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 지영환 목사(다우니제일교회), 김구민 목사(메릴랜드 발립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기독교인회 정기예배 및 특강

부활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교인회(회장 심진구 목사, 부회장 김영석 목사, 고종필 목사, 김창국 목사) 정기 예배와 특강과 리셉션을 4월 12일(토) 오전 11시 라파엣 파크 플레이스 2층에서 개최한다.

예배와 특강 후에는 리셉션(사랑의 애찬 점심식사)과 인증서(상장, 표창 감사장) 수여 세리머니도 한다. 설교와 특강은 최학량 목사(미주군목회 회장)와 샘신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가 맡았다.

리셉션은 웨스턴 7가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 1층 우미관 레스토랑에서 진행된다. 김민선 기자

장소 : 520 S. La Fayette Park Place #200 LA, CA 90057 (6가 + 라파엣 파크 플레이스, 사우스배일로 대학교 뒤편물 2층, 주차장 넓고 무료 주차)

문의: 213-590-9191, 213-522-3276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노스리지에 위치한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가 창립 및 통합예배를 6일 오후 4시에 드렸다.

2008년에 설립된 이 교회는 플러머 스트리트에 있는 안식일 교회, 성스테판 루터탄교회를 거치며 지역 사회 자녀들을 섬기며, 성장했으나, 코비드 팬데믹이 터져 교회가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이 고난을 계기로 그루터기 교회와 통합하게 되었다.

지성은 목사는 ‘하나님은 살아계 십니다’(누가복음 19: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계속 세리장의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며 “분명한 것은 그는 욕심과 욕망을 갖고 살기에 급급했던 삭개오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서, 옛날의 삭개오는 죽고 새로운 삭개오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삭개오라 불린 맹인 백사겸 전도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복된 삶을 살겠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결단을 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삭개오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삭개오와 백



지성은 담임 목사. ©기독일보

사겸 전도사가 끊임없이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오늘 창립과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하고 있는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 모임이 아닌지 스스로 묻고 도전해야 한다. 이 질문이 멈춰지는 순간, 더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문과 도전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사명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관계자는,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섬리였다”고 말했다.

교회는 샌퍼난도 밸리 아카데미 채플(Sanfernando Valley Academy Chapel 176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1면 기사 <에브리데이교회...>

에 이어서 신청기한은 4월 30일 동부시간 기준 자정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필수 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 미비 시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창민 목사는 이번 장학생 선발에 대해 “동부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진 길이지만,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학기와 마지막 날까지 학비와 생활비로 늘 하나님앞에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곤 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헤세드(Hesed)를 베푸셔서 학업을 잘 마쳤다”라고 소회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것이 참 많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소중한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 등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다. 몇년 전 롯기서를 강해하며, 헤세드란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것을, 남을 위해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 장학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에브리데이교회는 ‘헤세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를 도왔고(\$50,000), 교단 내 미자립 교회 6곳을 선정하여, 각각 \$15,000을 지원하기도 했다.

헤세드 장학생 모집을 위해 기

도하며 큰 의의를 두는 것은 손창민 목사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애정어린 손길이기도 하다.

손 목사는 “미국 내 신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향후 2-30년을 내다보면 현재 신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소명받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는 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헤세드 장학금은 인당 \$4,000의 학비 지원과 함께 5박 6일간 Hesed Trip을 포함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차세대 교회들을 방문하며 시야를 넓힐 기회를 얻게 된다.

장학금 뿐 아니라 장학생들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해 준비한 헤세드 트립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에브리데이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온라인 지원 신청 : <https://forms.gle/KcGT3VppUpeYX6Pi8>

서류 제출 : admin@churcheveryday.org

장학금 신청 문의 : hyesungkim@churcheveryday.org(김혜성 목사)



2025 동부한인교협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2025년 4월 20일 6:00AM

설교 : 박선호 목사(늘 푸른교회)

장소 :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주최: 동부 한인교회협의회
EASTERN KOREAN CHURCH ASSOCIATION

회장: 최현규 목사(주님 Church)
부 화장: 홍충수 목사(나성한미 교회)

시니어 건강칼럼 - 뇌자극과 치매

“약 없이도
뇌를 깨우는
TMS 치료법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뇌 건강은 나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우울증, 인지 저하, 수면 문제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약물 없이도 뇌를 자극하고 회복을 돕는 과학적 치료법, TMS(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가 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TMS란 무엇인가?

TMS는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즉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는 의미로, 두피에 부착한 특수 장비를 통해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장을 보내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는 뇌의 기능 중 기분 조절, 집중력, 기억력, 의욕 등을 관장하는 영역을 자극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TMS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마취나 절개 없이 진행되며 통증이 거의 없는 비침습적 시술, 일상 복귀 가능,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 소화기, 심장, 간 기능에 부담이 없음, 그리고 정신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효과적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전문의의 시술이 중요한가?

TMS는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시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위에, 어떤 강도로, 얼마나 자극할 것인지’는 철저한 임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 뇌는 수많은 기능이 정밀하게 분포된 복잡한 기관이다. 따라서 무작정 자극을 준다고 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된 부위에 자극을 주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감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TMS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평가하고,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해야 하는 고도화된 시술이다.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치료

센터메디컬클리닉은 정신과 전문의 고제득 박사의 진료와 TMS 시술을 직접 담당한다. 고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우울증, 불안 장애, 기억력 감퇴,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뇌 건강 문제에 맞춤형 TMS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제득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한다. “TMS는 단순한 기계 치료가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정확히 진단하고, 뇌의 어떤 회로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의 TMS 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단, TMS 적합성 평가 및 뇌 자극 포인트 설정, 알맞은 회당 치료 진행, 치료 중간 경과 체크 및 맞춤 조정. 정확한 진단, 안전한 장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의의 손길,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TMS는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TMS는 누구에게 효과적인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 항우울제 부작용이 심하거나 장기 복용이 어려운 환자, 기억력 저하, 무기력,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 노년층, 약 없이 뇌 기능 개선을 원하는 사람등.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TMS가 우울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FDA에서도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 받았다.

(고제득 주치의가 상담하는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클리닉 / (714)519-3024 / 1955 W Malvern Ave, #A, Fullerton, CA 92833
가든그로브 클리닉 / (714)583-8569 /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로렌하이츠 클리닉 / (626)363-4661 /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 「새한글성경」, 다음세대 위한 최적의 번역 ”

대한성서공회, 8일 출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가 8일 서울 중구 소재 영락교회(김운성 위임 목사) 본당에서 지난해 12월 10일에 발간된 「새한글성경」(이하 새한글)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 「새한글성경」 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환영사를 전한 권이현 사장(대한성서공회)은 “ 「새한글성경」 은 다매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된 새로운 성경”이라며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성서공회는 격동의 시기마다 한국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보급해 왔다.

「새한글성경」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읽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동현 번역자(「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는 “ 「새한글성경」 은 2천 년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한국어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 동포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섬기도록 번역한 성경”이라며 “심포지엄이 「새한글성경」 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동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 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박형대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새한글성경」 출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진행 사진.

원)가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유선명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가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이승문 교수(명지전문대학교목실장)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이수인 교수(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 △권순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가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새한글」 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

먼저, 김동혁 교수는 “ 「새한글」 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에는 문장 내 도치,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다양한 화계 등이 있다”며 “먼저, 문장 내 도치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조금 희생시키지만, 원문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며, 둘째로 「새한글」 이 과감하게 번역 속에 화자와 말의 종류를 명시한 것은 한국어 독자가 성경의 내용과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

며, 셋째로 다양한 화계를 활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의는 물론 성서학적 의의까지 지닌다”고 했다.

◇ 다음세대, 「새한글」 통해 하나님을 이해 · 사랑 · 경외하길

박형대 교수는 “우선 「성경원문 연구」에 다양한 색채의 글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한글」이 저본, 문법, 표현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맞이하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발전할 것을 시사한다”며 “다음세대가 「새한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

유선명 교수는 “사실상 한국교회의 공적 본문이 된 개역개정판은 성경의 독자들이 세대교체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한글」이 다음세대에 친숙해지는 만큼 기존 세대에게는 생경함이 더해지는 필연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며 “공예배시 성경봉독을 이종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지향성을 현실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이라고 했다.

◇ 「새한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승문 교수는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알파세대와 MZ 세대를 위한 최적화된 성경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성경의 번역 방향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공동체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경 읽기는 정기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활용법”이라며 “삶과 독서가 상호작용해야 하며, 몸짓과 말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가 삶에, 삶이 독서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경 읽기를 단순한 독서가 아닌 복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이라며 “ 「새한글」을 통한 성경 읽기와 듣기가 다음세대의 영성 유지와 창조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 「말씀의 변치 않는 본질」, 어떻게 각 시대의 매체 안에 담아낼 것인가?

이수인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성경 번역본 「새한글」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번역본은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이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즉시성 등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됐다”며 “디지털 텍스트는 접근성과 확산력, 유연한 업데이트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읽기의 피상성, 인지 부하, 자율성 훼손, 파편적 소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새한글」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설계된 번역본임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역사는 대체보다 공존과 접합의 과정을 반복해왔다”며 “성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형식을 통해 독자와 교회 공동체를 잇는 통로가 될 수 있

다”며 끝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변치 않는 본질을 어떻게 각 시대의 매체 안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술의 진보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경 번역본 이해도 조사… “ 「개역개정」보다 「새한글」 문법 쉬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경 번역본의 이해도 비교 조사에서, 최근 출간된 「새한글」 성경이 문법적으로는 기존의 「개역개정」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희 교수는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의 이해도를 비교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라 텍스트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비기독교 유학생은 두 번역본 모두에 대해 2점에서 10점 사이로 응답해 이해도 편차가 컸고, 기독교 유학생은 5점에서 10점 사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특히, 한자 문화권 유학생들은 「개역개정」에 포함된 한자어 덕분에 추론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옛 말투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한글」 성경은 고유어가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문법 구조와 문장은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도치 표현이나 시적 문장처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요한 기자

폭스뉴스 “尹 탄핵은 中 영향력 확대 전략 중 일부”

미국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5일(현지시각) 중동 미디어연구소(이하 MEMRI) ‘안나 마하르-바르두치(Anna Marjah-Barducci)’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MEMRI는 중국의 중동 내 이권을 위한 전략을 꾸준히 연구해 온 단체다. 바르두치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오랫동안 지원과 조종을 받아 온 친중 인사들과 극명히 대립된다”며 “이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키우려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중국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공공연한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 심지어 ‘불법 성상납’까지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마니아와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이 출마가 금지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라며 “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무기화됐다”고 했다. 그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하는 중국 매체의 태도에 대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고(brimming with pride)”, “매우 기뻐하고 있다(extremely pleased)”며 “중국은 이미 친미 성향의 박근혜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

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미셀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달보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달보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보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The King of Kings,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두드린다

엔젤 스튜디오, 예수님의 삶을 담은 오는 11일 개봉

부활절에 맞춰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he King of Kings》는 고전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장성호 감독의 이 영화는 마크 해밀, 우마 서먼, 피어스 브로스넌을 비롯한 스타급 성우진을 자랑하며,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 월터 디킨스의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솔하게 재해석한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마다 가족에게 읽어주던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 (1934년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출판됨)에서 영감을 받은 은 독특한 서사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영화는 케네스 브래너가 목소리를 연기한 디킨스가 어린 아들 월터(로만 그리핀 데이비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을 따라간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윌라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은 고대 예루살렘의 세계에 폭 빠져 예수의 탄생,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작 역량으로 완성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출과 프로듀싱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국내 VFX(시각효과) 1세대

전문가로 <공동 경비 구역 JSA>, <해운대> 등 굵직한 한국 영화에서 시각효과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함께 제작을 이끈 김우형 감독은 <1987>, <암살>, <고지전> 등 다수의 흥행작을 촬영한 촬영감독으로 BAFTA 촬영·조명상, 청룡영화상 등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제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CG/VFX 전문 기업 모팩 스튜디오(MOFAC STUDIOS, 이하 모팩)가 맡아, 섬세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연출을 구현해 냈다. 모팩은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아티스트와 테크니션들이 모여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약 250여 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VFX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운대>, <역도산>, <화산고> 등 200편 이상의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에 참여한 모팩은 업계 최초로 편집팀, FX팀, 기술 개발팀(R&D)을 구성하고 자체 파이프라인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품질 제작 환경을 실현해 왔다. 최근에는 VFX 기반의 비주얼 플랫폼 서비스와 IP 콘텐츠 제작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크리에이티브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

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영화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모팩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이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장성호 감독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 '만왕의 왕'에서 새롭게 풀어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어린이의 눈을 통해 희망, 사랑,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힘을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 영화에는 유명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해 각 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우마 서먼은 캐서린 디킨스의 목소리를, 마크 해밀은 헤롯 왕의 목소리를, 피어스 브로스넌은 본 디오 빌라도의 목소리를, 포레스트 휘테커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이들의 연기는 감동적인 울림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이야기 속 매 순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엔딩 타이틀곡 'Live Like That'은 브로드웨이 스타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맡아 감동을 더한다.

체노웨스는 뮤지컬 <위키드(Wicked)>에서 글린다 역으로 주목받았으며, 토니상과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다. 체노웨스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



찰스 디킨스가 미완으로 남긴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 포스터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탐구하는 영화에 음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적, 개인적 이정표입니다"라고 전했다.

영화 리뷰 사이트 ghmmoviefreak에서, 토니 아산코마는 "다르게 이야기된, 가장 위대한 이야기(The Greatest Story Ever Told, Again

but Differently)"라는 제목의 리뷰를 게재하며,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설교조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력 있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썼다.

김진영 기자

박한수 목사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 돼”

6일 제자광성교회 주일예배서 설교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6일 주일예배에서 '싸움의 기술-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갈 5: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됐다. 공산화됐다"며 "북한의 남한 적화 야욕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 '요즘 세상에 북한의 남파 간첩이 어디 있냐'고, '간첩이 있다'고 하면 시대 착오적이라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기 일쑤"라고 했다.

이어 "공산화의 1% 확률만 있어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

다. 이걸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나라의 안정에 관한 문제다. 간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경계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알다시피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체포했는데 재판을 5년 끝났다가 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위험한 이유는 그게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간첩질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더 치명적인 적은 내부의 적이다.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내부의 분열이 너무 심하다. 아무리 패려죽일 원수라도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중국 등의 편을 드는가"라고 했다. 박한수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가. 공산주의의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며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북한이 선교사를 받아들였는가. 중국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나라인가. 러시아가 그런가"라고 되물고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언론에서 교회를 때려잡고 나쁜 것만 부각하고 무슨 문제만 일으켜도 야무게 목사라고만 나온다. 그 사람이 이단인지 따지지도 않고 문제만 있으면 목사라고 나온다"고 했다.

박 목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언론 뒤에는 노조가 있다. 반기독교적 세력이 장악한 노조의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진리를 희석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신학교 강단에서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이것을 보고 끝인 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옛날엔 그런 가르침을 하면 신학교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그런 소리를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났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것이 많아져도 주류가 되면 문화가 되고, 법이 되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되면 진리도 답이 된다"고 했다.그는 "분명 검은 것인

데 사람들이 자주 하얗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70-80%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분명히 검은 것인 줄 알면서도 기세에 눌려 말을 안하 게 된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옛날에 저런 정도의 수준의 정치인이라면 한방에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버젓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건 우리들의 문제"라며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미얀마 강진 사망자 3500명 넘어



미얀마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 ©미얀마 사역자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3500명을 넘었으며, 부상자와 실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중앙(CC) TV는 미얀마 정부 발표를 인용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564명이 숨지고 50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는 21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진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규모 7.7의 강진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건물 붕괴, 도로 파손,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재난 발생 이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피해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며 이재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5일부터 6일까지 만달레이 지역에는 집중 호우가 이어졌고, 전막과 임시 쉼터에 머

물고 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폭우에 이어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피해 지역의 위생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지 구조팀은 하수가 범람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염병 감염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고, 구조대원과 이재민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정부와 국제 구조단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신망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크게 파손된 데다, 연이은 악천후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한된 외부 지원 속에서 미얀마 내부에서는 긴급 구호물자 확보와 의료 대응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생존자 보호를 위한 위생 물품과 식수, 임시 주거 공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라나이지리아 보코스 지역 야간 습격... 기독교인 11명 숨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비공식적인 국내실향민(IDP) 수용소로 피난했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마이두구리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 기독일보 DB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SMS 나이지리아 중부 보코스(BOKKOS) 카운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야간 습격으로 기독교인 11명이 숨졌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T는 이번 공격은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중에는 임신부와 그녀의 남편, 10세 소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루위(RUWI) 마을에서 45분간 이어졌으며, 주민들이 향년 87세의 지역 원로를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다.

CT는 현지 주민들은 나이지리아 당국이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공격이 벌어진 장소 인근에는 나이지리아 군과 기타 보안 인력이 주둔해 있었으나,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공격이 사전에 예고되었고, 이를 당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나이지리아 지부도 성명을 통해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당국의 무대응으로 시민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일럽 마나세 무트팡(CALEB MANASSEH MUTFWANG) 플래토(PLATEAU)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이번 잔혹한 공격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애를 향한 공격”이라며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지리아 마쿠르디(MAKURDI) 지역의 윌프레드 아냐베(WILFRED ANAGBE) 주교가 영국 상원에 출석해 나이지리아 내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학살이 “관례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냐베 주교는 영국 정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실행면 귀환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 여부를 외교 및 경제 관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교회로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새을 밝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요성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성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 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친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대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주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3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교회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 거부… 성장 보고 있어”

테네시 주 존슨 시티에 있는 알타 펠로우십 교회의 예배자들. ©The Altar Fellowship

미국의 한 목회자가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전미종교방송(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컨벤션에 참석한 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회를 비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바이벌메이커스(Revivalmakers Ministries) 사역의 창립자이자 전국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NHCLC)의 부회장인 토니 수아레스 목사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장을 보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민족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수아레스 목사는 교파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날”이라며 “우리 조부모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일부 기사는 교회 참석률 감소와 청년들의 문화적 단절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지만, 수아레스 목사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레스 목사는 “청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것에 목말라 한다”라며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 경험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스모크머신과 콘서트가 아니다. 제 아이들도 ‘콘서트를 원한다면 그곳에 갈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 갈 때는 교회가 되

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5세에서 21세 사이의 다섯 자녀를 둔 수아레스 목사는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보고 있다. 그의 사역은 정기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강조한다. 수아레스 목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가 방문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다. 수아레스 목사의 부흥 비전 핵심은 미국에서 히스패닉 교회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NHCLC에 따르면, 히스패닉과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거의 모든 교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는 “히스패닉 교회는 생명 존중, 결혼 존중이며 성경의 권위에 헌신한다”라며 “하나님에 대한 경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경의도 있다”고 했다. 수아레스 목사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성장은 미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신호 중 하나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보고 있는 희미한 희망의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4년 수아레스 목사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일련의 부흥 행사를 주도하여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였고, 이 행사에는 이주민, 법 집행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수천 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수아레스 목사에 따르면, 이 운동은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美 가톨릭 대학 “성경 관련 필수 과목 ‘퀴어신학’으로 대체 가능”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한 사립 가톨릭 대학교가 내년 가을학기부터 성경 본문에 관한 필수과목을 ‘퀴어신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901년에 설립된 포틀랜드대학교(University of Portland, 이하 UP)는 신학과를 확대해 ‘종교 연구’ 과목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 전통에 맞춰 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생신문인 ‘비컨’(Beacon)은 올해 초 “신학 전공생은 성경 본문 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100레벨 신학과과정(THE 105)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학년도부터 과거 필수과목이었던 ‘THE 205: 세계적 맥락에서의 성경 본문’이 선택과목으로 교체되며, THE 362: 퀴어신학(THE 362: Queer Theologies)도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해당 과목은 ‘퀴어 기독교 신학’을 소개 및 탐구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선택과목 ‘THE 400: 우리 어머니이신 하나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활용해 “하나님은 인간의 성별 구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성적 이미지를 넘어서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선택과목으로 ‘THE 317: 성경 속의 속임수, 젠더, 권력, 그리고 정치’, ‘THE 332 문화 간 페미니스트 신학’ 등이 있다. 신학과 임시 학과장이자 조교인 데이비드 턴블룸(David Turnbloom) 박사는 비컨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이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칼리지픽스’(The College Fix)에 따르면, 턴블룸 박사는 지난 2022년 한 신부가 캠퍼스에서 성소수자 깃발을 게양하는 것에 반대하자, 성금요일에 게재한 사설에서 “퀴어 공동체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퀴어 공동체의 분노는 은혜로 가득 찬 신성한 도구다. 우리가 죄를 볼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이 없다면, 어떤 용감한 사역 행위도 그저 십자가 처형을 계속할 위험이 있다”며 가톨릭 신자인 자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예수의 고통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우리의 폭력이 백부장의 폭력과 통합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톨릭행동연맹(Catholic Action League) C.J. 도일(C.J. Doyle) 전무이사는 칼리지픽스에 보낸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지만, 실은 ‘기능적 배교’”라며 “현대주의 이단자들이 어떻게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을 단체에서 몰아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퀴어신학’, ‘어머니 하나님’, ‘성경 속의 속임수, 젠더, 권력, 그리고 정치’ 등의 과목들은, 가톨릭 신앙과 도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이단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톨릭 고등교육이 교회나 가톨릭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가톨릭 진리나 교회 권위에 관한 그 어떤 신실함에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믿는, 문화에 순응한 학자들의 오만한 신념을 나타낸다”고 했다. 미셸 신 기자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자라나는 삶



댄 델렐 목사.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델렐 목사의 기고글인 ‘기독교인으로서는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You need this key feature to grow as a Christian)를 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델렐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온에 있는 리디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구세주의 훈련된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가 훈련을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며, 이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칭의)에서는 이미 도달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성화). 칭의는 회심의 순간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다.

제자도의 삶 속에서 세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순간순간 기쁘시게 하려는 삶 속에서 더욱 순종하고 훈련된 삶을 살아가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명백히 ‘진행 중인 작품’이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영적 훈련이 부족한 영역이 있는가? 훈련되지 않은 삶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훈련된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고린도전서 14:33). 그러므로 특색 있는 삶의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려면 훈련된 마음이 필수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베드로후서 3:1).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며 성령의 통제 아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사고는 영적 건강의 핵심 요소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이 탈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경험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베드로는 호수 위에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갔다”(처음엔 괜찮았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태복음 14:29-30). 베드로의 훈련된 마음과 강한 믿음은 처음에 그를 물 위로 걷게 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덮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다시금 두려움에 굴복했다(요한복음 18:15-27 참조). 이처럼 베드로의 굽은 행동은 그가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채택한 굽은 생각의 수치스러운 표현이었다. 보시다시피, 전장은 바로 ‘생각’이다. 마음속에 질투, 정욕, 두려움 등을 허용할 때, 말(거짓말, 험담, 분노 폭발 등)과 몸(폭력, 성적 죄, 탐식 등)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영적 성장이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언 25:28). 반대로, 성령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굴복시키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라”(갈라디아서 5:22-2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곧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마태복음 14:31). 아마 당신도 한때 어리석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신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인내와 성품, 영적 성숙을 만들어 가신다(로마서 5:3 참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3). 성경 읽기,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섬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영적 성숙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다섯 가지 거룩한 실천이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났을 때(요한복음 3:3-8; 디도서 3:4-6 참조),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의 보좌에 오르셨다(로마서 6:1-18 참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라디아서 2:20)라고 말했다. 불행히도, 믿는 자는 때때로 다시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된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 채, 옛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금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상시적 위험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여”(시편 19:14).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도우신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후서 10:5). 바울은 또 이렇게 힘 있는 통찰을 나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셨다”(디도서 2:11-12).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다(에베소서 2:8-10 참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각과 행동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필요성과, 영적 성장을 돕는 거룩한 습관들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매일 새롭게 배워가야 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AKUS-ATL, 회장 오대기, 이사장 주중광)는 최근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직의 향후 비전과 실천 계획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박효은 수석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대기 회장의 동상 건립 경과 보고, 주중광 이사장의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인사들은 한미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언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향후 활동 의지를 강조했다. 오대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미연합회는 한미 간 연합 동맹을 극대화해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DM) 오전 10:30 대학원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때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3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토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3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रेस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증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투산 목회자 세미나 참석 후 부흥 경험

한인 적은 아리조나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 제5회 목회자 세미나가 미주 현지 시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아리조나 투산영락교회에서 열렸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총 25개 교회에서 참석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교단을 막론하고 함께 모인 자리는 전도와 부흥의 이론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 할지를 함께 나누는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더 나아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각 교회의 전도와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세번째 참석한 박상목 목사(시에라비스타 연합장로교회)는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2회의 세미나에 참석한 후 교재를 20번 이상 다시 읽고 그 대로 실천했더니 부임 당시 4명의 성도가 있던 교회가 2년이 지난 지금은 8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가주어노인팅교회의 남상권 목사도 “작년에 참석한 경험

을 토대로 열심히 전도했더니 순수한 새신자를 10명 이상 전도하고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한인 인구가 매우 적은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 동역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세미나이다.

처음 시작은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지경을 넓혀서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 제6회 목회자 세미나는 2026년 초에 전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제5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산영락교회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삶의 위기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시는 이들을 위한 강의가 4월 10일부터 시작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8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지속된다.

ICMM의 제임스 구(Dr. James Koo) 박사가 준비한 이번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강의는 병원, 군대, 교정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채플린(군목, 병원 목회자 등) 또는 영적 돌봄 사역자로 섬기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준비를 제공한다. 내용으로는 1. 병원 채플린의 정체성과 소명, 2. 병원 시스템과 채플린의 역할, 3. 영적 돌봄의 원리와 실천, 4. 질병과 고난의 신학, 5. 임종

환자와 가족 돌봄, 5. 환자 유형별 영적 돌봄 등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대상은 채플린 사역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선교지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신 분 등이며, 등록은 ICMM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등록비는 \$100이다.

ICMM 홈페이지: churchhomepage.org/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 B115, Buena Park,

CA, 90621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Global Vision Univer
https://globalvision.univer

Chaplain and
Spiritual Care
Ministry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 Spring 2025
- 목요일 7시 8주간
- 현장, Zoom, 통신



강의 내용 및 초대

- 영적 돌봄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
-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 영적 돌봄의 사명을 품고 계신 모든 분

Register Here!

949-667-0264, 714-393-4595
https://globalvision.university

한미연합회 학생들, 모의유엔서 9개상 수상

총 19명 참가, 9개 상 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학생들이 지난 4월 5일과 6일에 걸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개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9개의 상을 수상했다. 모의유엔 대회는 학생들이 국제 문제를 모의로 논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외교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19명의 KAC MUN 학생들이 참가해 사전에 배정받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8개 위원회에서 국제적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부문에서는 위원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레이첼 최학생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회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소피아 김학생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준 변 학생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에릭 최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USC에서 개최한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9개의 상을 수상했다. ©ksocla.com

학생과 유진 권 학생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위원회에서 활약하여 장려상을 수상했고, 격려상(Verbal Commendation)은 스테판 정 학생과 제이미 임학생에게 돌아갔으며, 레이첼 최학생과 시온 이 학생은 리서치상을 수상하였다.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민디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

습한 노력의 결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미연합회가 지난 1983년부터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회(kacla.org) 기사제공

강준민 칼럼

십자가는 흥기를 향기로 바꾸어 주는 나무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글쓰기를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가슴에 울림을 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중의 하나가 루오의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짙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짙는 도끼에 향을 묻히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끼는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독이 아니라 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

작했습니다. 그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증언합니다(벧전 1:18-19).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피, 곧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대속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보혈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그 피는 우리 죄를 정

결케 하는 능력이며, 죄와 허물을 덮고 제거해 주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듯,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고, 또한 도말하십니다(골 2:13-14).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은혜도 크지만, 죄를 제거해주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히 10:10, 17-18).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과거를 덮고, 우리 미래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입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아픕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굼고 썩으며 결국 독을 발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진주로, 향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독을 제거하고 향기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품고, 상처를 감싸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승우 작가의 글이 떠오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흥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아,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를 겹층습니까?” (이승우, 『향기로운 세상』, 살림, 171쪽)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리셨습니다. 흥기를 향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흥기가 향기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향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향을 뿜는 고난의 나무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향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사모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 속에 감춰진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한남옥 칼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알게 된 사랑의 언어



한 남 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창밖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문득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는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사랑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45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깊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요.

연애 때의 사랑만으로는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삶을 통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오해 속

에서 상처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야 조금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으며,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삶으로 익혀온 그 감정의 언어에 명확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지도를 다시 손에 넣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아,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Gary Chapman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는 제1의 언어인 모국어 외에도,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제2의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 방식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채프먼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를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며,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다섯 가지로 나뉘며, 누구나 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언어를 주된 방

식으로 사용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실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몰랐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는 대화를 통해서만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언어가 다르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인정의 말'을 통해 격려를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봉사의 행동'을 통해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 손잡기나 포옹과 같은 신체 접촉이 사랑의 표현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는 다양하고, 우리는 상대의 언어를 배워야만 진정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상대방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아이를 안아주고,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보세요.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안내서가 되어줍니다. 오늘, 그 사랑의 언어 한마디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 가정에 다시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제2의 언어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매우 유용한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FAQ'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실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담겨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점검해볼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 검사'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어 비교표'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장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o@gmail.com

전화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 ■ ■

선교 칼럼

사랑이 언어를 이긴다



최민기 선교사
과테말라 선교사
'진심이 열심을 이긴다' 저자

주여! 샬랄라라라라라... 디오스 에스 아모르 이 뿌에데스 크레르 엔 헤수스 이 모랄 엔엘 아모르!

“00선교사님이 방언을 하다가 그 나라 언어가 터졌대”

“정말? 우와! 나도 그렇게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신학교 때 돌던 소문이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급히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현지인을 만나자 갑자기 방언이 터지며 그 나라 말로 대화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상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언어의 장벽을 완벽히 뛰어넘지 못한다. 선교사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악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흘으신 강력한 저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언어가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으로 갔을 때,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하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게 되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이었다. 담임 목사님은 한국어가 편하니 한국어로 사역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몇 주간 아이들과 지내보니 아이들의 Heart Language(마음의 언어)는 영어였고, 영어로 복음을 듣고 싶은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설교, 찬양, 기도는 영어로 하자!”

그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영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어가며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거의 본문을 읽다시피 했지만, 설교, 기도, 찬양 모두 영어만 사용했다. 너무나 뿌듯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있

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대학생 중에 차분하고 성실한 자넷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자넷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자넷,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니?”

“음... 3~5%정도요...” 많이 잡아줘야 5%라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100% 영어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말로만 하시다가 요즘 영어를 조금 섞어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나는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아이들은 내 영어가 영어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회장을 불러 물어보았다.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나름 미국 신학교도 다니고 내 스스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는 내 실력이 드러난 것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언으로 언어가 터졌다는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했지만, 영어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았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셨다.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알았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학생 중에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데이빗은 처음에는 거절하며 왜 꼭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캐물었다. 나는 데이빗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부족하여 자주 실수하여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아침을 차려주시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도 주셨다. 베드로의 삶은 단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낮아짐 속에서도 변치 않은 예수님의 인내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나도 내게 맡겨진 양들이 굶어 메마른 삶을 살지 않도록 먹이고 싶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식을 주고 싶었다. 초식 동물에게 육식을 먹일 수 없고, 매일의 양식을 인스턴트로 때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고, 나의 진심이 데이빗에게 전해졌다. 데이빗이 말했다.

“전도사님은 멋진 분이었군요. 제가 돕겠습니다”

나는 데이빗에게 내가 작성한 영어 원고를 보냈다. 데이빗은 내가 역작한 문장들을 보고,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 가운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낸 영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와 표현들, 문장 구조는 영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데

세, 띄어 읽기 등 전반적인 리딩능력이 엉망이었던 것이다.

“데이빗 안 되겠다. 원고를 내가 읽고 녹음해서 나에게 보내줘. 내가 그것을 듣고 연습해서 설교해 볼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데이빗의 목소리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지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데이빗의 것과 비교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과 발음으로 고쳐나갔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자넷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사님 예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영어가 뭔가 달랐어요”

“오늘 말씀 와닿았어요,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과테말라 San Miguel Mitas Altas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술을 지도했다. 맨 앞줄 가운데가 최민기 선교사의 아내인 양정현 선교사.

이빗과 한국어 원고, 영어 원고 두 개를 펼쳐놓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데이빗은 내 영어 문장을 수정해 주었다. 내 영어 원고는 온통 빨간 줄이 쳐졌고, 고친 흔적들로 건축 설계도면을 방불케 했다. 10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의 시기도 부족했다.

나는 다음 주일 데이빗과 함께 완성한 원고를 들고 주일 강단에 섰다.

‘이제는 아이들이 100% 알아들겠지’ 마음이 뿌듯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자넷에게 물었다.

“오늘 말씀은 어땠니? 몇 %정도 이해했어?”

나는 자넷의 입에서 100%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자넷의 입만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음... 30%정도요, 전보다는 많이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나는 애써 담대한 척했지만 사실 적지 않게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 문제는 나의 억양과 강

세, 띄어 읽기 등 전반적인 리딩능력이 엉망이었던 것이다.

“데이빗 너무 고마워,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 이후 우리 가정은 매주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이 좁고 누추했지만, 무엇이든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었다. 부족한 형편에도 뉴포트비치 새벽 수산물 시장에 가서 게와 새우를 잔뜩 사 와서 아이들을 먹였다. 아이들이 물었다.

“왜 저희에게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넉넉하지도 않으실 텐데요?”

“그냥...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소통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영어실력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다. 결국 언어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이 언어를 이긴다! 하나님이 언어를 흘으신 것은 장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함께 여행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었다.

미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우리 집 앞으로 몰려왔다.

“목사님은 ‘진짜’였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16)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험이...

01 말씀팔찌

02 말씀팔찌

03 말씀팔찌

04 말씀팔찌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www.j1mart.com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오후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트로트 디너 콘서트 티켓 선물 이벤트



[이벤트 안내]

“우리 부모님을 꼭 이 디너쇼에 모시고 싶은 이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께 디너쇼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마감: 4월 1일
- 당첨자 발표: 4월 4일(기독교일보)
- 사연보내실곳 : kticketbox@trinity-m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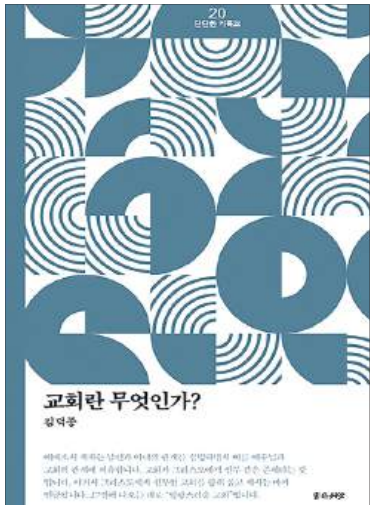
지금 사연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세요!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목회자가 알려주는 교회의 의미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지적하는 한 가지 표현



교회란 무엇인가?

김덕종 | 좋은씨앗 | 144쪽 | 8,000원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교회를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신앙 공동체로 설명하며,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질문에 성경적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며,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역설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이어, 김덕종 목사의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됐다. 인천 동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김 목사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읽고 서울성경신학대학교대학원 최순봉 총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목회자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여러 상황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편안한 문제로 풀어냈습니다(6쪽).”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가는 바로 ‘목회자의 눈, 목회자의 언어’라는 부분이다. 이 책엔 교회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것을 마치 목회자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듯 풀어냈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자는 93쪽에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피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기 위해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탄에게 핏값을 치러 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93쪽).”

화목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흠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화목제물의 목숨값은 누구에게 치르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신 쓴 잔, 그것에 담긴 저주와 심판은 사탄의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가?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못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사탄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을 살려 저자가 말하려고 한 의도, 즉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한 것은 옳지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기 위해”라는 말은 대대적인 점검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다. 김덕종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건물이 아니라 구속 받은 사람, 즉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1장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 무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흠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했다(2장).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서로를 돕고 세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3장). 성경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룬 구성원을 가리킨다. 모든 집마다 가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4-5장).

저자는 매우 탁월하게 진리가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성경의 올바른 교리 위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진리에 충성하는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신다.

저자는 6장과 7장에서 교회의 성장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건강한 몸이 성장하기 마련이듯, 건강한 교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성장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과정에 충실하면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주가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자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8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한다. 계시록에 기록된 열방의 찬양을 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 전경. ©페이스북

용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한 몸을 이루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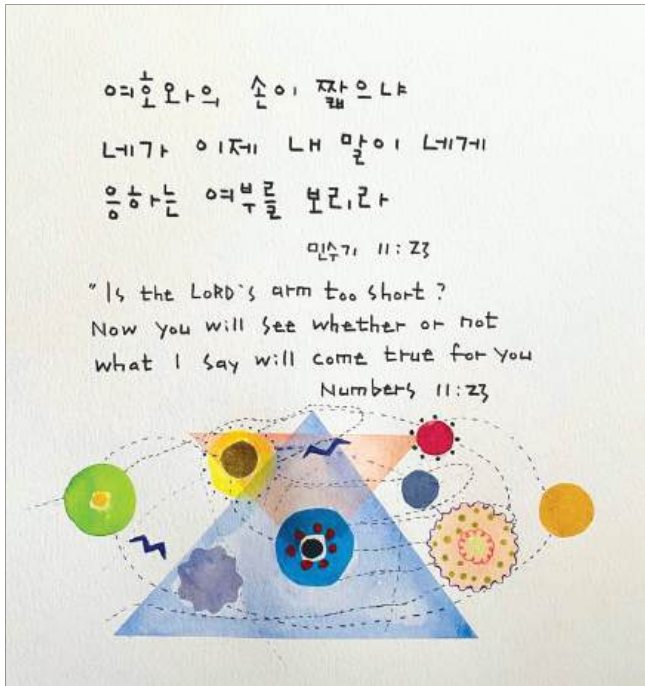
이 책은 갓피플몰에서 조직신학 부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잠깐 동안이지만), 추천 신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실 조직신학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매우 체계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때로 그 과정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보다 학문적인 설명을 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목회적

인 관점에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바란다.

그런 면에서 김덕종 목사의 〈교회란 무엇인가?〉는 교회에 관한 ‘단단한 기독교’ 교리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WPC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공고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 총노회에서 전도사,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1. 고시 일자: 2025년 7월 12일 (토) AM 10시
2. 고시 장소: 조이풀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3. 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생으로 응시 자격을 갖춘 자
4.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교 (M. Div)를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5. 목사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6.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2025년 4월 18일 (금) 오후 5시까지
7. 전도사 고시 과목: 성경,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정치), 면접.
8. 강도사 고시 과목: ① 제출 과목: 논문과 주해 및 설교. ② 시험 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접.
9. 목사 고시 과목: 12신조,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정치), 면접

※ 문의처: 고시 부장 김정호 목사 (213-210-3877) 고시부서기 김경식 목사 (213-909-3579) ※ 타 교단도 고시 문의 요망.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petrauniversity.org/wpc

Petra University
F-1 유학생 모집
B.Th, M.Div, D.Min 가능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World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LA 중앙 총노회 고시부 (LA Central Synod Qualification Exam Office)

총노회 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 부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서기: 김경식 목사 (직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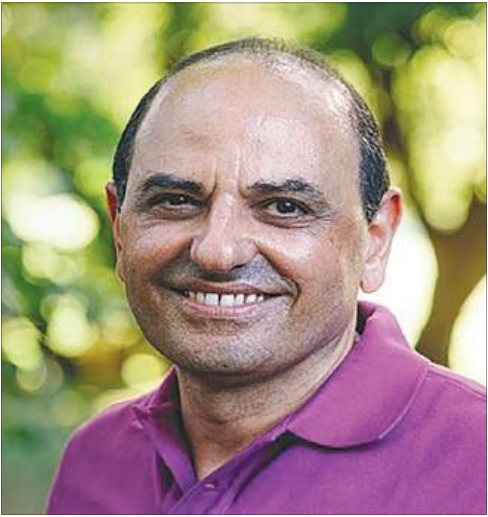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과 그 치명적 결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J.존의 기고글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보기’(Find out how close you are to being considered a fool)를 최근 게재했다.

J 존은 목사, 연사, 방송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 팟캐스트인 ‘J.John Podcast’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4월 1일은 일반적으로 만우절로 여겨진다. 그 중심에는 잘못된 신뢰가 있다. 우리는 어떤 뉴스 기사나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그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놀라게 된다. 끊임없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AI 생성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신뢰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주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역에서는 끊임없이 가짜 J.John 페이스북 페이지들과, 추악한 목적을 가지고 팔로워들에게 접근하려는 온라인 시도들과 싸우고 있다.

사실, 성경이 어리석음(fools)에 대해 말할 때는 결코 농담하지 않는다. 성경은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하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J.존. ©기독일보 DB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fool)’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다 (마태복음 18:3-4; 마가복음 10:15).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란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고 지혜를 조롱하며 옳은 것보다 그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 둘 다 맞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하나의 손실이 다른 여러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무신론은 세상과 존재, 삶 자체를 최악의 농담처럼 바라보게 한다. 존재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없으며, 우리는 먼지에서 왔다가 결국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는 너무나 무겁다. 그것은 모든 궁극적인 의미를 잃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정말 잘못된 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이 만든 무의미한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라면, 결국 “더 강하고, 더 거칠고, 더 잔인한 사람이 이긴다”는 잔혹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다. 물론 그 잔인함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싫어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항의할 근거조차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한 후, 성경은 직설적으로 덧붙인다: “그들은 부패하였으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자 중에서도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만한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

셋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성경이 말하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삶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롭고 열등한 대체물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채워

져야 하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진다. 신학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정말 현명한 말이다.

인간은 본성상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다른 것인 소유, 부, 정치, 쾌락, 성, 권력, 명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우상들은 곧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지배하고,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요구로 인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짜 어리석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며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무신론을 거부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 이상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란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회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결코 옷을 입지 않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란다.

“140년 전 한 알의 밀알 되었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가 주일인 6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같은 해 설립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비전선포식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가 대회사를 전했고, 이정숙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김정석 감독회장이 설교했다. 축도는 직전 감독회장인 이철 감독이 했다.

박동찬 목사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140년 전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던 한국 땅에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셨다. 헨리 아펜젤러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스크랜턴, 로버트 하디, 그리고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또 하나의 밀알이요 복음의 씨앗이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오늘의 우리는 이들의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다. 그러기에 오늘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단순히 지난 세

월을 돌아보며 기념하는 자리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은 인사말에서 “140년 전,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던 조선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의 입국으로 근대식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으며 복음의 산실인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선교사들은 구한 말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속에서 고통받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선물했다. 교회의 복음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로 이어진 근·현대 역사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복음의 열정으로 비약적인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며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념의 대립과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 등은 미래의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10년 후 맞

이할 선교 150주년을 그려 본다. 기념대회가 단순한 감사와 기억을 넘어 선교 150주년, 200주년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2부 비전선포식에선 우크라이나에 구급차를 전달하고 아프리카에 어린이 급식비를 후원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천영대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 조보현 이사장(배재학당 이사회)의 축사, 비전 선포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감리교회 비전선언문’에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운 학교와 병원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바꾸었고 민족 지도자 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다고 자부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 역사 최초,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2026년 오순절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펼쳐질 주의 재림의 리허설, 마라나타 대합창제를 향한 두번째 대회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대회장/담임 한기홍 목사

일시 2025년 4월 22일 - 25일
장소 LA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요일정

4.22(화)-4.24(목)

-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이스라엘 사역 거장들과의 만남
- 다양한 주제 강의와 패널 토크 쇼

4.25 (금)

- 2026년 오순절 감람산 마라나타 대합창제 설명회
- 이스라엘 글로벌 경제인 오찬 모임
- 기독교 최초 뮤지컬 영화 상영
-룻기 ONE NEW MAN
- LA 은혜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
(동양의 선들러 뮤지컬 '생명의 도장'공연)

선택 사항

행사 이후 미서부 관광

신청 접수

이명이 목사 714-336-8995
(미국 현지 접수)
유태일 장로 310-720-2512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신청양식과 구글 접수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강사진



탐헤스



마이클 브라운



미치 글레이저



윌럼 글라스하우윅



이성자 목사



론 데이비스



박영민 목사



설진국 목사



마트 데이비스



가이 코헨



김사랑 목사



조한주 목사



김정환 목사



데이비드 평



장치밍 장로



정원일 박사



정태권 목사



정호진 박사



현민정 목사



쵸아이링 목사



잭리 목사



조대경 목사



설은수 목사



한미정 박사



진육민 목사



조이스정 선교사



주최: L.A 은혜한인교회 & IN for ONE 국제본부 주관: IN for ONE & El Emet
협력 단체: 남가주 침례교 지방회, O.C 교회 협의회, 중부 교회 협의회